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4, 799 - 813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오 영 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진 한국인 용서 척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축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50대에 이르는 전국의 성인 남녀 156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10문항), 1문항 용서 질문, Heartland 용서 척도, TRIM, Spielberger의 상태분노와 상태불안 척도, CES-D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은 양호한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α = .86)를 보여주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비교적 양호하였다(r = .78).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변량 44.80%). 또 단축형 척도의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1문항 용서 질문에서 더 많이 용서했다고 반응했고, TRIM과 Heartland 용서 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용서 집단은 비용서 집단보다 용서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구성타당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용서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축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전체형(24문항)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만 다소 떨어지고 타당도는 유사하였다. 단축형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20-50대에 이르는 남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10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영희, (132-714)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대 심리학과, Tel: 02-901-8305, E-mail: yhoh@duksung.ac.kr

www.kci.go.kr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로 '한'을 이야기하고, 한과 관련된 '화병'이라는 고유한 정신장애를 논의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상처를 받고난 뒤 그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민성길, 1991). 용서는 특히 부당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의 문제해결방법으로서 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오영희, 1995).

지금까지 사례연구, 상관 연구,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용서가 분노, 우울, 불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 충동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희망,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분노감정의 통제, 부부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오영희, 2004, 2007; Controneo, 1989; Enright & Fitzgibbons, 2000; Worthington, Jr., 2005). 즉, 심리학적 연구들은 용서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용서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표는 분노, 우울, 불안이다. 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외국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용서는 분노와 -.26~-.44, 우울과 -.34~-.51, 불안과는 -.15~-.43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Mullet, Neto & Rivere, 2005).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박종효, 2006; 오영희, 2004, 2007).

또한 용서는 신체건강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생리학적 매개과정을 살펴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교감신경, 심혈관, 면역 및 내분비체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는 반면에 용서반응은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여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박종효, 2003).

이처럼 용서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씩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김광수, 2002; 김광수, 하요상, 2006; 김기범, 임효진, 2006; 김상현, 금명자, 2011; 김현주, 안현의, 2011;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박종효, 2003, 2006, 2007; 서정선, 신희천, 2007; 오영희, 2004, 2006, 2007, 2008, 20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서 연구들은 외국의 용서 척도와 용서과정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수, 1999; 오영희 200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 척도이다. 용서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 척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서 척도들은 외국 척도들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용서 척도들은 일부 문항의 부절적성,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의 부적합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오영희, 2010).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용서척도인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는 인지반응 20문항, 정서반응 20문항, 행동반응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전체 용서점수외에 각 하위영역별 하위점수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다(Enright, 2000; Subkoviack et al., 1995). 그러나 실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인지, 정서, 행동반응은 뚜렷하게 구별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고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실

www.kci.go.kr

제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용서반응을 조사했을 때 특히 정서와 인지측면을 구분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오영희, 2006).

EFI를 개발한 Enright는 본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미국인들의 경우는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EFI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3요인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요인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EFI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EFI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문항들을 합쳐서 3요인으로 하위척도를 나누고 그 점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용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용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용서문헌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얻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24문항의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오영희, 2008, 2010).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에 맞게 상처를 받은 특정 상황에서의 대인 용서에 대한 척도를 먼저 개발하였다[1]. 여기서 용서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그런데 한국인 용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더니 용서가 외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지, 정서, 행동반응으로 구성된 3요인이라기 보다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희, 2008, 2010). 오영희(2006)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난 뒤 그 사람에 대한 ① 생각 ② 감정 ③ 행동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많은 참여자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일부는 두 내용이 동일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용서를 정서·인지·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1요인으로 본다면 굳이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용서척도의 문항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축형 용서 척도는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 있다. 첫째, 척도 작성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둘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예: 말기암 환자, 정서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용서 척도를 사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셋째, 문항수가 작으면 한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수가 늘어나

1) 이와 같이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에는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 Subkoviak 등, 1995),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 McCullough 등, 1998, 2000)가 있다. 반면에 용서를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는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Inventory(Tangney, Fee, Reinsmith, Boone & Lee, 1999)), Heartland Forgiveness Scale(Thompson et al., 2002)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대인용서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김지영, 권석만, 2009).

www.kci.go.kr

므로, 용서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용서 척도의 단축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축형 척도의 타당성 검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②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 1문항 용서 질문과의 상관, 다른 용서 척도들과의 상관, 용서와 비용서집단의 용서점수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③ 준거관련타당도는 용서와 대표적인 부적응 변인들(불안, 분노, 우울)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방 법

참여자

참여자들은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20-50대의 성인 남녀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상처의 기준은 용서 척도에 있는 "그 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상처받지 않음)에서 5점(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음)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보통이상으로 상처받음)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상처점수의 평균은 4.12(표준편차 .78)로, 참여자들은 타인에게서 상당히 많은 상처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특성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737	47.2
	여자	823	52.8
연령별	20대	727	46.6
	30대	384	24.6
	40-50대	449	28.8
거주지역별	서울	333	21.3
	경기도	205	13.1
	충청도	220	14.1
	전라도	174	11.2
	경상도	335	21.5
	강원도	286	18.3
학력별	중학교졸업	11	0.7
	고등학교졸업	241	15.4
	대학교재학/중퇴	718	46.0
	대학교졸업	458	29.4
	대학원졸업	130	8.3
종교별	개신교	448	28.7
	가톨릭	184	11.8
	불교	259	16.6
	기타	16	1.0
	무교	648	41.5

www.kci.go.kr

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자는 1560명이고,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 오영희(2010)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 24문항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여 10문항을 선정하였다:

① 사람들의 응답빈도가 높은 것(오영희가 2006년에 우리나라 성인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용서에 대한 질적 연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봄으로써 용서반응을 조사하였다.)

② 문항-전체 상관이 높은 것(.40 이상)

위의 2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최종 선정된 10문항은 용서한 뒤의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4문항, 인지반응을 측정하는 2문항,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참조). 이 문항 비율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오영희(2006)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을 인지, 정서, 행동 영역으로 분류했을 때 나온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비록 오영희(2008, 2010)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서가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만, 사람들의 실제 반응비율에 따라 용서의 3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시키면 용서를 더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은 각각 5문항씩이다. 용서반응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용서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용서를 많이 한 것이다.

1문항 용서 질문.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1문항으로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해관련 대인관계 동기 척도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 McCullough 등(1998, 2000)이 개발한 이 척도는 한국인 용서 척도와 유사하게 특정한 상처(가해)를 입힌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특수상황적인 대인관계 용서척도로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TRIM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총 12문항인데,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회피동기를 측정하는 7문항과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복수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번역은 본 연구자가 국문으로 번역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심리학전공자가 영문으로 역번역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원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McCullough 등이 보고한 전체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는 .93, 회피동기는 .92, 복수동기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복수동기가 높고 용서가 낮은 것이다(범

www.kci.go.kr

위: 전체척도는 12-60점, 회피동기는 7-35점, 복수동기는 5-25점).

Heartland 용서 척도(HFS). Thompson 등(2002)이 개발한 이 척도는 일반적인 용서성향(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HFS는 총 18문항으로, 부정적인 일이 자신의 행동때문에 발생했을 때 자기를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용서성향 6문항, 타인의 행동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타인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타인용서성향 6문항, 통제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상황용서성향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번역은 위에서 언급한 TRIM의 번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외국의 연구에서 보고된 HFS의 신뢰도(Cronbach *α*)는 전체척도는 .84-.87, 하위척도는 .71-.83이다(Thompson & Snyder, 2003).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는 .84, 자기용서성향은 .65, 타인용서성향은 .69, 상황용서성향은 .70으로 나왔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 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성향이 높은 것이다(범위: 전체척도는 18-126점, 각 하위척도는 7-42점).

분노 척도.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겸구 등이 보고한 상태분노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왔다. 상태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이다(범위: 10-40점).

불안 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1996)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상태불안 검사 20문항,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특성불안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 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상태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범위: 20-80점). 한덕웅 등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Cronbach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93이 나왔다.

우울 척도.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서 정신병리적인 우울보다는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검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판 검사도구를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0점('극히 드물게') 에서 3점('거의 대부분')까지 Likert식 4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정하였다. 전겸구 등(2001)이 보고한 신뢰도

www.kci.go.kr

(Cronbach α)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도 .91이었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범위: 0-60점).

절차와 자료 분석

2010년 10월에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의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본인과 친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오게 하였다. 설문지는 불안 척도, 분노 척도, 우울 척도, Heartland 용서척도, TRIM,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0-20분 정도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8.0와 AMOS 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은 Cronbach α, 평균, 표준편차, Pearson r, t 검증, F검증, χ^2,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인 용서 점수가 성별과 연령(20대, 30대, 40-50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뢰도

오영희(2010)가 보고한 24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95이었는데, 단축형 10문항의 신뢰도는 .86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95명에게 4주 간격으로 용서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78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항별 기술통계치와 문항-총점 상관을 살펴보았다. 평균은 범위가 2.20-3.56으로 바닥이나 천정효과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표준편차들의 범위는 1.04-1.30로서 반응들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문항-총점 상관은 .40-.67로 양호하였다(부록 1 참조).

구성타당도

단축형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축형 척도의 문항의 수가 본 척도와 다르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는데,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ryer-Olkin)지수는 .88로서 문항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45, N = 1560) = 5858.84$, $p < .001$.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 결과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2개 추출되었다. 1요인의 고유가는 4.48(설명변량 44.80%)이고, 2요인의 고유가는 1.22(설명변량 12.23%)이었다. 스크리 분석 결과와 요인행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축형 척도에서 측정하는 용서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www.kci.go.kr

AMOS 4.0을 이용하여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χ^2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적합도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표 1을 보면 1요인 모형의 χ^2 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범위는 .40-.71이며, 모두 유의미하였다(부록 1에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얼마나 용서하였는지를 물어보는 1문항 용서 점수(범위 1-5점)와 단축형 용서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더니,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었다(r = .78, p < .001). 즉, 한국인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구성타당도의 하나인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축형 한국인 용서 척도와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용서척도들과의 상관도 비교해보았다. 표 3을 보면 한국인 용서척도 단축형은 이 척도와 유사하게 상황특수적인 대인용서를 측정하지만 동기의 변화로 평가하는 TRIM의 복수동기

표 2.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1180.73(35)	.000	33.74	.95	.97	.11

표 3. 연구변인들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용서(단축형)									
2. 복수동기	-.62								
3. 회피동기	-.76	.62							
4. 자기용서성향	.25	-.24	-.15						
5. 타인용서성향	.39	-.38	-.34	.44					
6. 상황용서성향	.31	-.32	-.21	.60	.58				
7. 상태불안	-.27	.22	.16	-.49	-.33	-.46			
8. 상태분노	-.24	.31	.17	-.31	-.29	-.34	.54		
9. 우울	-.27	.22	.17	-.53	-.33	-.50	.75	.56	
평균	28.24	11.36	21.76	27.75	25.77	21.49	42.45	13.02	34.96
표준편차	7.81	5.27	7.75	5.02	5.21	5.09	10.13	4.25	9.45
문항내적일치도	.86	.91	.92	.65	.69	.70	.93	.92	.91

N = 1560,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www.kci.go.kr

(r = - .62)와 회피동기(r = -.76)와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일반적인 용서성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과는 유의미하지만, 증간정도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자기용서성향과는 r = .25, 타인용서성향과는 r = .39, 상황용서성향과는 r = .31).

마지막으로 한국인 용서 점수가 용서집단과 비용서집단을 구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문항 용서 점수를 이용해서 용서집단(4점 이상)과 비용서집단(2점이하)로 나눈 후에 두 집단 간에 한국인 용서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860) = 30.56, p < .001. 용서집단(평균 34.38, 표준편차 7.33)은 비용서집단(평균 20.70, 표준편차 5.80)보다 용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준거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 용서 점수와 부적응 점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용서와 상태불안과는 r = -.27, 상태분노와는 r = -.24, 우울과는 r = -.27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용서를 많이 할수록 불안, 분노, 우울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석: . 상처의 정도, 종교, 용서의 관계

용서 점수는 상처의 심각성(r = -.25), 상처의 부당성(r = -.33)과 모두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상처가 심각할수록, 상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용서 점수는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와 종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간 용서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더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1553) = 1.83, p > .05. 종교별(기독교, 불교, 무교)로 나누어서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536) = 2.44, p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용서 척도의 단축형을 개발하고, 20-50대 성인 1560명을 대상으로 단축형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전체형 척도와의 비교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표 4로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단축형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문항내적 일치도의 경우 전체형 척도(24문항)는 α = .95이었는데, 단축형은 .86으로서 중간수준 이상이었다.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형 척도는 r = .85이지만, 단축형은 .78로 나왔다. 문항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단축형의 신뢰도가 전체형 척도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단축형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변량은 44.80%였다.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χ^2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또 한국인 용서 점수는 1문항 용서 질문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r =

www.kci.go.kr

.78)을 보였는데,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서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서 용서집단은 비용서집단보다 용서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축형의 연구결과는 전체형 척도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추가해서,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과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용서 척도들과의 상관을 비교해보았다.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은 이 척도와 유사하게 상황특수적인 대인용서를 측정하지만 동기의 변화로 평가하는 TRIM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복수동기와는 r = - .62, 회피동기와는 -.76). 반면에 일반적인 용서성향을 측정하는 HFS의 하위척도들과는 유의미하지만, 중간정도의 상관(r = .25 ~ .39)을 보여줌으로써 수렴타당도를 입증해주었다.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용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수인 분노, 불안, 우울과 용서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는 분노, 불안, 우울과 -.24 ~ -.27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형 척도와 부적응 지수들은 -.22 ~ -.26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준거관련타당도에서 전체형과 단축형 척도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용서를 1요인으로 가정하고, 용서척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축형을 개발하고 타당화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24문항의 전체형 척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신뢰도(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고,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는 전체형과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표 4. 한국형 용서 척도 전체형과 단축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비교

구분	종류	전체형 척도 (24문항, N = 1183)	단축형 척도 (10문항, N = 1560)
신뢰도	문항내적 일치도	a = .95	a = .86
	검사-재검사 신뢰도	r = .85	r = .78
구성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1요인 (설명변량 44.27%)	1요인 (설명변량 44.80%)
	확인적 요인분석	부분적으로 수용	부분적으로 수용
	1문항 용서질문과의 상관	r = .74	r = .78
	용서와 비용서집단 구분	유의함	유의함
	TRIM 용서척도		
	복수동기	연구안됨	r = - .62
	회피동기		r = - .76
	HFS 용서척도		r = .25 ~ .39
준거관련타당도	상태분노	r = - .25	r = - .27
	상태불안	r = - .26	r = - .24
	우울	r = - .22	r = - .27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www.kci.go.kr

에는 단축형 척도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단축형 척도는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유의한 용서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50대의 성인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인 용서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서와 같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록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없는 문항만을 선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앞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가해자나 제 3자의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 용서 척도와 다른 용서 척도들, 다른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특수 상황적 용서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용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의 용서(예: 특성용서, 자기용서 등)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중고등학생들의 용서에 대한 예비연구에 기초해 볼 때 한국인 용서척도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 165-191.

김광수, 하요상 (2006). 용서 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4), 909-930.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김상현, 금명자 (2011). 공감이 지각된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325-339.

김지영, 권석만(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김현주, 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민성길 (1991). 홧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 1189-1198.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박종효 (2007). 한국형 아동·청소년의 용서심리검사(EFI-C)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1(1), 265-281.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www.kci.go.kr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오영희(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오영희(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Spei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0), 60-78.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xel, 241-244.

Enright, R. D. (2000).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for Children.* Madison, WI: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Hillsdale, NJ: Erlbaum.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W., et al .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Mullet, E., & Neto, F., & Riviere, C., (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reveng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uo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Tangney, J. Fee, R., Reinsmith, C., Boone, A. L., & Lee, N. (1999).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opensity of forgive.* Paper presented at 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rthington, Jr., L.(Ed.) (2005). *Handbook of*

www.kci.go.kr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et al.(2002).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원고접수일: 2011년 8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9월 21일
게재결정일: 2011년 12월 8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4, 799 - 8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Forgiveness Scale-Short Form

Young Hee Oh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Forgiveness Scale-Short form(KFSS). The sample consisted of 1560 adults who had been hurt by others(age range: 20-60 years old). The measures included the KFSS,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TRIM), Spielberger Anxiety and Anger Scale, and CES-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FSS had relatively good internal consistency(Cronbach α=.86) and test-retest reliability(r=.78). Both explan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ggested that the KFSS had one factor which explained 44.80% of total variance. The KFSS was highly correlated with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It also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ther forgiveness measures(HFS and TRIM). In addition, the forgiveness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KFSS scores than the non-forgiveness group. Finally, the KFS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KFSS ha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Keywords: Korean forgiveness scale-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www.kci.go.kr

부록 1. 한국인 용서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표준화계수

	문항	*M(SD)*	문항-전체상관	표준화계수
	1.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다.*	2.94(1.20)	.67	.71
	2.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2.52(1.04)	.63	.69
	3.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 E	3.32(1.18)	.66	.69
	4.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2.75(1.10)	.51	.57
	5.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2.87(1.22)	.53	.55
	6.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3.56(1.30)	.40	.40
	7.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2.82(1.25)	.60	.68
	8.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2.76(1.22)	.43	.46
	9.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2.51(1.13)	.61	.69
	10.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2.20(1.19)	.63	.70

* : 역산문항(1, 3, 5, 6, 8번)

E : EFI와 동일한 문항(1개)

www.kci.go.kr